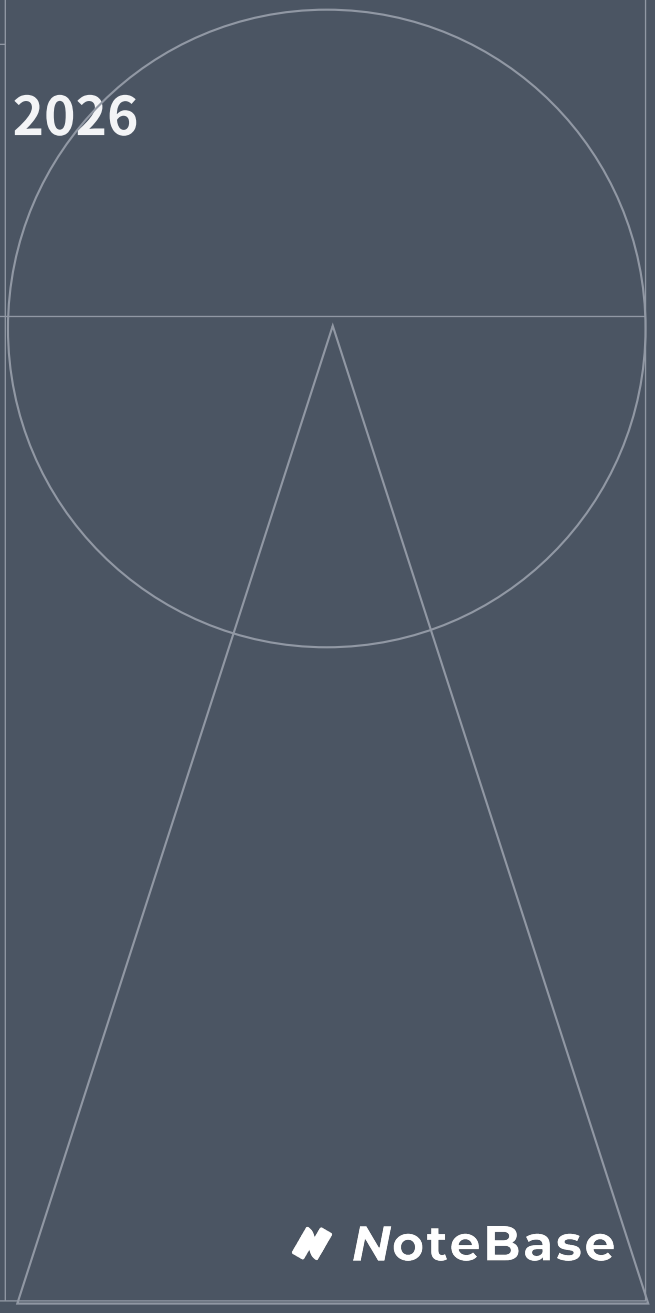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군무원/9급 · 국어 · 2026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군무원/9급 · 국어 · 2026

공무원/군무원/9급 · 국어 · 2026

1. 단어 형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덮개'는 합성어이다.
   ② '먹이다'는 파생어이다.
   ③ '손수건'은 파생어이다.
   ④ '풋사과'는 합성어이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단어를 이루는 요소가 어근인지 접사인지 분석하여 합성어와 파생어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합성어: 둘 이상의 어근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이다.
파생어: 어근에 접사가 붙어 만들어진 단어이다.
결정적인 구별 기준은 결합한 요소가 실질적 의미를 지닌 어근인지, 어근에 붙어 뜻을 더하거나 품사를 바꾸는 접사인지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덮개'는 동사 어간 '덮-'에 접미사 '-개'가 붙은 파생어이다. 틀린 표현은 '합성어'이며, 올바르게는 '덮개는 파생어이다.'이다.
② O — '먹이다'는 어근 '먹-'에 사동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이-'가 붙은 파생어이다.
③ X — '손수건'은 어근 '손'과 어근 '수건'이 결합한 합성어이다. 틀린 표현은 '파생어'이며, 올바르게는 '손수건은 합성어이다.'이다.
④ X — '풋사과'는 '덜 익은'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풋-'이 어근 '사과' 앞에 붙은 파생어이다. 틀린 표현은 '합성어'이며, 올바르게는 '풋사과는 파생어이다.'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덮개’와 ‘풋사과’가 두 부분으로 나뉜다는 이유만으로 합성어라고 판단하기 쉽다. 단순히 형태가 둘로 나뉘는지가 아니라 ‘-개’와 ‘풋-’이 접사인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손수건’에는 접사가 없고 ‘손’과 ‘수건’이라는 두 어근이 결합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단어를 구성 요소로 나눈 뒤 각 요소의 성격을 확인한다. 어근과 어근의 결합이면 합성어이고, 어근과 접사의 결합이면 파생어이다.

암기 포인트

어근+어근은 합성어, 접사+어근 또는 어근+접사는 파생어이다.

NoteBase

2. 밑줄 친 관용 표현의 쓰임이 문맥상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실수하지 않게 눈 똑바로 뜨고 일해라.
② 잠시 눈을 붙였더니 몸이 한결 나아졌다.
③ 동생은 눈에 모를 세운 친근한 얼굴로 나를 보았다.
④ 생일을 맞아 눈 딱 감고 비싼 선물을 준비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관용 표현의 실제 의미가 문장 속 상황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관용 표현은 둘 이상의 말이 결합하여 각 단어의 표면적 의미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새로운 뜻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눈에 모를 세우다'는 성이 나서 눈을 사납게 뜨거나 날카로운 눈초리로 노려본다는 뜻이므로 '친근한 얼굴'과 어울리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O는 관용 표현이 문맥상 적절함을, X는 적절하지 않음을 뜻한다.
① O — '눈을 똑바로 뜨다'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의 깊게 살핀다는 뜻이다.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일하라는 문맥에 알맞다.
② O — '눈을 붙이다'는 잠을 자거나 잠깐 눈을 감고 쉰다는 뜻이다. 잠시 잔 뒤 몸이 한결 나아졌다는 문맥에 알맞다.
③ X — '눈에 모를 세우다'는 성난 눈으로 사납게 노려본다는 뜻이므로 '친근한 얼굴로 나를 보았다'와 의미가 충돌한다. 틀린 부분은 '눈에 모를 세운'과 '친근한 얼굴'의 결합이다. '동생은 눈에 모를 세우고 화난 얼굴로 나를 보았다.'로 고치면 자연스럽다.
④ O — '눈을 딱 감다'는 어떤 일을 단호히 결심하거나 다른 사정을 생각하지 않고 행동한다는 뜻이다. 비용 부담을 감수하고 비싼 선물을 준비했다는 문맥에 알맞다.

오답 포인트

③의 '모를 세우다'를 단순히 눈매가 또렷하거나 반듯하다는 뜻으로 오해하기 쉽다. 이 표현에는 화가 나서 사납게 노려본다는 부정적 의미가 있으므로 '친근한'과 함께 쓸 수 없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밑줄 친 표현을 실제 뜻으로 바꾸어 문장에 넣은 뒤, 주변의 감정·행동·상황과 의미가 충돌하는지를 확인한다. 문제의 '적절하지 않은'이라는 부정형 조건도 함께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눈에 모를 세우다 = 화가 나서 사나운 눈으로 노려보다.

NoteBase

3. 다음에서 설명하는 피동문 형성의 경우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무가 열매를 맺었다. (능동) → 나무에 열매가 맺혔다. (피동)

① 마을이 흰 눈으로 덮였다.
② 오늘은 추운 날씨가 풀렸다.
③ 나는 그 소식이 믿기지 않는다.
④ 이 책은 사람들에게 많이 읽힌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피동문은 주어가 다른 대상의 동작을 당하는 뜻을 나타내며, 피동 접사가 붙은 말이라도 문맥에서 단순한 상태 변화를 뜻하면 피동문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능동문은 주어가 동작을 직접 하는 문장이고, 피동문은 주어가 다른 대상의 동작을 당하는 문장이다. 피동문은 능동문의 목적어가 주어로 바뀌고, 서술어에 피동 접사 '-이-, -히-, -리-, -기-' 등이 붙어 만들어질 수 있다. 다만 접사 모양만 보지 않고 문장 전체에서 '동작을 당함'의 뜻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덮였다'는 '덮다'에 피동 접사 '-이-'가 붙은 표현이다. '흰 눈이 마을을 덮었다'에서 목적어였던 '마을'을 주어로 바꾸면 '마을이 흰 눈으로 덮였다'가 되므로 적절한 피동문이다.
② X — '추운 날씨가 풀렸다'의 '풀렸다'는 누군가의 동작을 당했다는 뜻이 아니라 날씨가 누그러졌다는 상태 변화를 나타낸다. 올바르게는 이 문장을 피동문이 아닌 자동사문으로 판단해야 한다.
③ O — '믿기지'의 '믿기다'는 '믿다'에 피동 접사 '-기-'가 붙은 피동사이다. '나는 그 소식을 믿지 않는다'에 대응하여 그 소식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피동의 뜻을 나타낸다.
④ O — '읽힌다'는 '읽다'에 피동 접사 '-히-'가 붙은 표현이다. '사람들이 이 책을 많이 읽는다'에서 목적어였던 '이 책'을 주어로 바꾼 피동문이므로 적절하다.

오답 포인트

②의 '풀렸다'에 '-리-'와 같은 형태가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피동사라고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이 문장에서는 '날씨가 누그러지다'라는 상태 변화의 뜻이므로 피동문이 아니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주어가 다른 대상의 동작을 당하는지 확인한다. 다음으로 대응하는 능동문에서 목적어였던 말이 피동문의 주어가 되었는지 살핀다. 단순히 '-이-, -히-, -리-, -기-'의 형태가 보인다는 사실만으로 피동문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

암기 포인트

피동은 접사 모양보다 '주어가 동작을 당하는가'가 핵심이다. '날씨가 풀리다'는 상태 변화이다.

NoteBase

4. 밑줄 친 외래어 표기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생일을 맞아 케이크(cake)를 준비했다.
② 관광지 안내용 팜플렛(pamphlet)을 제작하였다.
③ 동생은 달콤한 초콜릿(chocolate)을 무척 좋아한다.
④ 세계가 우리의 전통 콘텐츠(contents)에 공감하고 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외래어를 국어의 음운과 문자 체계에 맞춘 표준 표기로 적을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외래어 표기는 외국어의 소리를 국어의 음운과 문자 체계에 맞춰 적는 규범이다. 이 문항의 표준 표기는 cake는 '케이크', pamphlet은 '팸플릿', chocolate은 '초콜릿', contents는 '콘텐츠'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cake의 표준 표기는 '케이크'이므로 적절하다.
② X — '팜플렛'은 잘못된 표기이다. 올바른 표기는 pamphlet을 옮긴 '팸플릿'이다.
③ O — chocolate의 표준 표기는 '초콜릿'이므로 적절하다.
④ O — contents의 표준 표기는 '콘텐츠'이므로 적절하다.

오답 포인트

일상에서 자주 들리는 '팜플렛'을 표준 표기로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규범 표기는 '팸플릿'이다. 또한 contents를 '컨텐츠'로 적지 않고 '콘텐츠'로 적는다는 점도 혼동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익숙한 발음이나 원어 철자의 모양만 따르지 않고, 정해진 외래어 표기를 기준으로 각 단어를 대조한다. 특히 자주 잘못 쓰는 모음과 받침까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케이크·팸플릿·초콜릿·콘텐츠로 묶어 기억한다.

NoteBase

5. 다음에서 설명하는 상대높임법에 해당하는 것은?

> 자기와 비슷한 사람을 대우하여 말하는 등급으로 배우자와 같이 거리는 가까우나 격식적 예의를 지켜야 하는 사람에게 말할 때 쓴다.

① 이제 어디로 가시오?
② 철수야, 이리 와 보렴.
③ 아침부터 어디 다녀오세요?
④ 자네, 혼자서 할 수 있겠나?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상대 높임법의 각 등급을 종결 표현으로 구별하고, 설명에 해당하는 하오체를 찾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하오체는 화자가 자기와 비슷한 위치의 상대를 어느 정도 높여 격식 있게 말하는 예사 높임의 상대 높임법이다. 주로 '-오', '-소'와 같은 종결어미가 쓰이며, '가시오'에서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 뒤에 하오체 종결어미 '-오'가 결합한다.
하오체는 상대를 높이는 격식체이고, 하게체는 상대를 낮추되 어느 정도 대우하는 격식체이다. 해요체는 상대를 두루 높이는 비격식체이며, 해라체는 상대를 아주 낮추는 말투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가시오'는 '가-시-오'로 분석되며, '-시-'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이고 '-오'는 상대를 어느 정도 높여 격식 있게 말하는 하오체 종결어미이다. 제시된 설명에 해당한다.
② X — 틀린 표현은 '와 보렴'이다. '-렴'은 해라체에 쓰이는 종결 표현이므로 상대를 아주 낮추는 말투이다. 하오체로는 '철수, 이리 와 보시오.'와 같이 고친다.
③ X — 틀린 표현은 '다녀오세요'이다. '-세요'가 쓰인 해요체는 비격식적인 두루높임 표현이다. 하오체로는 '아침부터 어디 다녀오시오?'와 같이 고친다.
④ X — 틀린 표현은 '할 수 있겠나'이다. '-나'가 쓰인 하게체는 상대를 예사롭게 낮추는 격식체이다. 하오체로는 '자네, 혼자서 할 수 있겠소?'와 같이 고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③의 '-세요'도 상대를 높이므로 정답처럼 보이지만, 제시문은 가까운 사람에게도 격식적 예의를 갖추는 하오체를 설명한다. 해요체는 비격식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또한 ④의 '자네'가 어느 정도 대우하는 호칭이어도 문장의 종결 표현 '-나'는 하게체이므로 하오체가 아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상대 높임의 등급은 호칭보다 문장 끝의 종결어미를 먼저 확인한다. '-오/-소'이면 하오체, '-네/-나/-게'이면 하게체, '-아요/-어요/-세요'이면 해요체, '-아라/-어라/-렴'이면 해라체로 판단한다. '가시오'에서는 '-시-'와 '-오'를 구분하여 하오체 종결어미가 '-오'임을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비슷한 상대를 격식 있게 높이는 말투는 하오체이며, 대표 종결어미는 '-오·-소'이다. '가시오'는 '-시-'와 '-오'가 결합한 형태이다.

NoteBase

6.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나랏 말ᄊᆞ미 中國에 달아 文字와로 서르 ᄉᆞᄆᆞᆺ디 아니ᄒᆞᆯᄊᆡ 이런 젼ᄎᆞ로 어린 百姓이 니르고져 홇 배 이셔도 ᄆᆞᄎᆞᆷ내 제 ᄠᅳ들 시러 펴디 몯ᄒᆞᄂᆞ미 하니라 내 이를 爲ᄒᆞ야 어엿비 너겨 새로 스믈여듧 字를 ᄆᆡᇰᄀᆞ노니 사ᄅᆞᆷ마다 ᄒᆡ예 수ᄫᅵ니겨 날로 ᄡᅮ메 便安킈 ᄒᆞ고져 홇 ᄯᆞᄅᆞ미니라

① 새로운 문자 창제의 뜻을 알리고 있다.
② 새로 만든 문자는 28자로 이루어져 있다.
③ 현대 국어에서는 쓰이지 않는 문자가 나타난다.
④ '어린 百姓'은 '나이가 적은 百姓'이라는 뜻이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훈민정음 언해 서문의 내용과 중세 국어 어휘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는 문제이다. 발문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으므로 보기의 내용과 어긋나는 선지를 찾는다.

핵심 개념

이 글은 우리말이 중국말과 달라 한자로 뜻을 제대로 표현하기 어려운 백성을 위해 세종이 새 문자 28자를 만들었으며, 누구나 쉽게 익혀 편리하게 쓰기를 바랐다는 창제 취지를 밝힌 글이다. 중세 국어의 '어린'은 현대 국어의 '나이가 적은'이 아니라 '어리석은'이라는 뜻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백성이 자기 뜻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현실, 새 문자 28자의 창제, 백성이 쉽게 익혀 편리하게 쓰도록 하려는 목적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문자 창제의 뜻을 알 수 있다.
② O — 본문에 '새로 스믈여듧 字를 맹ᄀᆞ · 노니'라고 하여 새로 만든 문자가 28자임을 직접 밝히고 있다.
③ O — 본문에는 아래아 ' · ' 등 현대 국어의 문자 체계에서는 쓰이지 않는 글자가 나타난다.
④ X — 틀린 표현은 '나이가 적은 百姓'이다. '어린 百姓'의 '어린'은 중세 국어에서 '어리석은'이라는 뜻이므로, 올바르게는 '어리석은 백성'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④의 ‘어린’을 현대 국어의 의미인 ‘나이가 적은’으로 해석하기 쉽다. 그러나 옛말은 오늘날과 형태가 같아도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글의 ‘어린’은 ‘어리석은’을 뜻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고전 문헌의 어휘를 현대 국어의 뜻으로 바로 해석하지 않고 문맥과 중세 국어의 의미를 확인한다. 또한 부정형 발문에서는 각 선지를 본문의 직접 표현과 대조하여 내용이 어긋나는 선지를 고른다.

암기 포인트

훈민정음 언해 서문의 ‘어린 백성’은 ‘나이 어린 백성’이 아니라 ‘어리석은 백성’이다.

NoteBase

7. (가)~(다)의 뜻에 해당하는 사자성어로만 연결된 것은?

(가) 작은 이익에 집착하다가 큰 이익을 놓침.
(나) 남의 말만 듣고 주체 없이 판단함.
(다) 겉으로는 강해 보이나 실제로는 부드러움.

① (가) 견리망의(見利忘義)
(나) 이합집산(離合集散)
(다) 외강내유(外剛內柔)
② (가) 소탐대실(小貪大失)
(나) 부화뇌동(附和雷同)
(다) 외강내유(外剛內柔)
③ (가) 견리망의(見利忘義)
(나) 부화뇌동(附和雷同)
(다) 외강내유(外剛內柔)
④ (가) 소탐대실(小貪大失)
(나) 이합집산(離合集散)
(다) 외유내강(外柔內剛)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문장에 제시된 상황을 사자성어의 핵심 뜻과 정확히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소탐대실(小貪大失):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는다는 뜻이다.
부화뇌동(附和雷同): 자기 주관 없이 남의 의견을 따라 움직인다는 뜻이다.
외강내유(外剛內柔): 겉은 강해 보이지만 속은 부드럽다는 뜻이다.
견리망의(見利忘義)는 이익을 보면 의로움을 잊는다는 뜻이고, 이합집산(離合集散)은 헤어지고 모이는 일을 되풀이한다는 뜻이며, 외유내강(外柔內剛)은 겉은 부드럽지만 속은 강하다는 뜻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다)의 외강내유는 맞지만, (가)의 '견리망의'와 (나)의 '이합집산'이 틀렸다. (가)는 작은 이익을 탐하다 큰 이익을 놓치는 '소탐대실', (나)는 주관 없이 남의 말을 따르는 '부화뇌동'이 올바르다.
② O — (가) 소탐대실은 작은 이익에 집착하다 큰 이익을 놓치는 상황, (나) 부화뇌동은 주체 없이 남의 의견을 따르는 상황, (다) 외강내유는 겉은 강하지만 속은 부드러운 성질과 각각 정확히 대응한다.
③ X — (나)의 부화뇌동과 (다)의 외강내유는 맞지만, (가)의 '견리망의'가 틀렸다. 올바르게는 작은 이익을 탐하다 큰 것을 잃는다는 뜻의 '소탐대실'이다.
④ X — (가)의 소탐대실은 맞지만, (나)의 '이합집산'과 (다)의 '외유내강'이 틀렸다. (나)는 '부화뇌동'이 올바르며, (다)는 겉이 강하고 속이 부드러우므로 '외강내유'가 올바르다.

오답 포인트

①·③의 '견리망의'는 이익과 관련된 말이라 (가)와 비슷해 보이지만, 핵심은 '작은 것을 탐해 큰 것을 잃음'이므로 소탐대실이다. 또한 외강내유와 외유내강은 한자 배열에 따라 겉과 속의 성질이 정반대가 된다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문장의 핵심어를 먼저 뽑아 대응한다. '작은 이익·큰 손실'은 소탐대실, '주관 없이 남을 따름'은 부화뇌동, '겉은 강함·속은 부드러움'은 외강내유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작은 것을 탐하면 소탐대실, 남을 따라 울리면 부화뇌동, 겉강속부는 외강내유이다.

NoteBase

8. 다음 글의 밑줄 친 '동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구보는 단장을 왼팔에 걸고,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러나 그가 그 속에서 다섯 닢의 동전을 골라 내었을 때, 차는 종묘 앞에 서고, 그리고 차장은 제자리로 돌아갔다. 구보는 눈을 떨어뜨려, 손바닥 위의 다섯 닢 동전을 본다. 그것들은 공교롭게도 모두가 뒤집혀 있었다. (중략) 그것은 적어도 '행복'은 아니었을 게다.
>
> – 박태원,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

① 인물이 장차 획득하게 될 막대한 부와 명예를 상징한다.
② 인물이 처한 고독한 처지와 현실적 삶의 무게를 상징한다.
③ 인물 간의 갈등을 중재하고 화해를 이끌어내는 매개체이다.
④ 과거의 평화로웠던 시절로 돌아가게 하는 매개체이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작품 속 소재인 '동전'이 인물의 내면과 현실을 어떻게 상징하는지 파악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상징적 소재는 구체적인 사물을 통해 인물의 심리나 처지와 같은 추상적 의미를 드러내는 소재이다. 구보가 손바닥의 동전을 보며 그것이 적어도 '행복'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장면에서, 동전은 구보의 고독한 처지와 행복하지 않은 현실의 무게를 드러낸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표현은 '막대한 부와 명예'이다. 지문에는 동전을 재산이나 사회적 성공과 연결하는 내용이 없다. 올바르게는 동전은 구보가 느끼는 고독과 행복하지 않은 현실을 상징한다고 해야 한다.
② O — 구보가 다섯 닢의 동전을 바라보며 그것이 '행복'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므로, 동전은 그의 고독한 처지와 현실적 삶의 무게를 상징한다.
③ X — 틀린 표현은 '인물 간의 갈등을 중재하고 화해를 이끌어내는'이다. 이 장면에는 동전으로 갈등을 조정하거나 인물들이 화해하는 사건이 없다. 올바르게는 동전이 구보 개인의 내면과 현실 인식을 드러내는 매개체라고 해야 한다.
④ X — 틀린 표현은 '과거의 평화로웠던 시절로 돌아가게 하는'이다. 지문에는 동전이 과거를 회상하게 하거나 과거로 되돌리는 기능이 나타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동전이 현재의 고독하고 행복하지 않은 처지를 인식하게 하는 매개체라고 해야 한다.

오답 포인트

동전이라는 사물의 일반적 이미지에 기대어 ①의 부와 연결하면 안 된다. 이 문항의 실제 근거는 구보가 동전을 본 직후 그것을 '행복'이 아니라고 판단한 대목이며, 갈등 해결이나 과거 회상은 지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소재의 상징 의미를 묻는 문제에서는 그 소재를 본 인물의 행동과 바로 이어지는 생각을 함께 확인한다. 소재 직후의 심리 진술이 인물의 처지와 연결되면 그 의미를 우선하고, 지문에 없는 사건이나 기능은 배제한다.

암기 포인트

동전의 일반적 의미보다 지문 속 인물의 반응이 우선이다. 이 장면의 동전은 부가 아니라 고독과 현실의 무게를 드러낸다.

NoteBase

9.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현대의 주류 언어학은 의미전달을 위한 추상적인 구조로 언어를 이해한다. 즉 언어는 다양한 사물이나 개념을 가리키는 단어들과 그 단어들을 의미 있게 구성하여 문장으로 만들어내는 문법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문법은 언어 사용자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추상적인 형태의 지식이다. 예를 들어 한국어 사용자는 한국어로 말할 때 문장에서 단어들이 어떤 순서로 배열되어야 한다든지, 문장 안에서 각 단어가 맡은 문법적 기능들이 어떻게 표시되는지를 직감적으로 알고 있다. 주류 언어학은 이러한 추상적인 지식의 구성원리를 밝혀냄으로써 한 언어가 어떻게 하나의 독립적인 체계로 기능하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
> 그러나 ㉠사회언어학은 언어 사용자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추상적인 지식을 출발점으로 삼는 대신, 언어가 실제로 존재하는 근본적인 공간, 즉 인간들 사이의 사회관계에서 출발한다. 사회언어학에서 바라보는 언어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회적 관계와 무관한 추상적 구조가 아니라, 그 사회적 관계를 매개하는 수단, 더 나아가 사회적 행동 그 자체인 것이다. 여기서 언어는 단지 사람들 사이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한다는 추상적인 의미에서 사회적인 것이 아니다. 우리는 언어를 통해 다른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형성하고 변화시키며, 그를 통해 공동체를 이루기도 하며 사회의 구조를 변화시키기도 한다. 사회언어학은 이러한 사회적 행위로서의 언어에 초점을 맞춘다.

① 머릿속에 내재한 구조화된 문법이 출발점이다.
② 언어는 독자적인 존재로서 사람 사이의 관계와 무관하다.
③ 사람들 간의 소통을 조직하는 추상적인 기능이 본질이다.
④ 언어의 사회적 행위는 사회적 변화를 가져오는 행동으로 정의된다.

정답 4번

NoteBase

출제 포인트

주류 언어학과 사회언어학이 언어의 본질과 출발점을 어떻게 다르게 보는지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주류 언어학은 언어 사용자의 머릿속에 있는 추상적 문법 지식의 구성 원리를 밝혀 언어를 독립적인 체계로 설명한다.
사회언어학은 언어가 실제로 존재하는 사회관계에서 출발하며, 언어를 사회적 관계를 매개하고 형성·변화시키는 사회적 행위로 본다.
결정적인 차이는 언어를 사회관계와 분리된 추상적 구조로 보느냐, 사회관계 속에서 작동하는 행위로 보느냐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머릿속에 내재한 구조화된 문법이 출발점'이라는 설명은 주류 언어학에 해당한다. 올바르게는 사회언어학은 인간들 사이의 사회관계에서 출발한다고 해야 한다.
② X — '독자적인 존재로서 사람 사이의 관계와 무관하다'는 부분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사회언어학에서 언어는 사회관계와 밀접하게 관련되며 그 관계를 매개하고 형성·변화시키는 수단이자 행위이다.
③ X — '추상적인 기능이 본질'이라는 부분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사회언어학에서 언어의 본질은 추상적인 의사소통 기능에만 있지 않고, 사람들의 소통과 관계 형성을 조직하는 구체적인 사회적 행위에 있다고 해야 한다.
④ O — 제시문은 언어가 사람 사이의 관계를 형성하고 변화시키며, 공동체를 이루고 사회 구조까지 변화시키는 사회적 행위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언어의 사회적 행위를 사회적 변화를 가져오는 행동으로 이해한 진술은 적절하다.

오답 포인트

①은 주류 언어학의 관점을 사회언어학의 관점으로 바꾸어 놓았고, ②와 ③은 제시문이 부정한 '사회관계와 무관한 독립적 체계'와 '추상적 기능 중심'의 관점을 사회언어학의 특징처럼 제시했다. 특히 ③의 '소통을 조직한다'는 말만 보고 고르기 쉽지만, 제시문은 추상적 기능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회관계의 형성과 변화에 초점을 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머릿속·추상적 문법·독립적 체계'가 중심이면 주류 언어학으로, '사회관계·매개·형성·변화·사회적 행위'가 중심이면 사회언어학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주류 언어학은 머릿속의 문법 체계, 사회언어학은 관계 속의 사회적 행위이다.

NoteBase

10.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① 할∨수∨있다면∨해∨보아라.
② 그는∨나를∨도와줄수∨없다.
③ 우리는∨오늘∨뿐만∨아니라∨내일도∨만난다.
④ 그∨일은∨생각∨한∨바가∨아니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의존 명사는 앞말과 띄어 쓰고,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쓰며, 본용언과 보조 용언은 원칙적으로 띄어 쓴다는 규정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수'와 '바'는 이 문장에서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오늘' 뒤의 '뿐'은 한정의 뜻을 더하는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해 보아라'의 '보다'는 어떤 행동을 시험 삼아 함을 나타내는 보조 용언이므로 본용언 '해'와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할 수'의 '수'는 의존 명사라서 띄어 쓰고, '해 보아라'는 본용언과 보조 용언을 원칙대로 띄어 쓴 표현이므로 옳다.
② X — '도와줄수'에서 의존 명사 '수'를 앞말에 붙여 쓴 것이 틀렸다. '그는 나를 도와줄 수 없다.'로 고쳐야 한다.
③ X — '오늘 뿐만'에서 조사 '뿐'을 앞말과 띄어 쓴 것이 틀렸다. '우리는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만난다.'로 고쳐야 한다.
④ X — '생각 한'에서 용언 '생각하다'의 어간과 관형사형 어미를 띄어 쓴 것이 틀렸다. '바'는 의존 명사이므로 '그 일은 생각한 바가 아니다.'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뿐'을 언제나 의존 명사로 보아 띄어 쓰거나, 의존 명사 '수'를 앞말에 붙이는 데서 오류가 생기기 쉽다. 또한 '생각한'을 '생각 한'으로 나누면 어간과 어미를 잘못 띄게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수·바'처럼 앞말의 꾸밈을 받는 의존 명사는 띄어 쓰고, 체언 뒤에서 한정의 뜻을 더하는 '뿐'은 조사이므로 붙여 쓴다. 용언은 어간과 어미를 붙여 쓰며, 본용언과 보조 용언은 원칙적으로 띄어 쓴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의존 명사 ‘수·바’는 띄고, 조사 ‘뿐’은 붙이며, ‘해 보아라’는 원칙적으로 띄어 쓴다.

NoteBase

11. 다음의 '형태소'에 대한 예시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형태소'는 의미를 가진 가장 작은 단위이다. 예를 들어, '바다'를 '바'와 '다'로 나눌 경우 '바'와 '다'가 의미를 가지지 않으므로 '바다'는 하나의 형태소이지만 '봄꽃'은 의미를 가진 '봄'과 '꽃'으로 나누어지므로 하나의 형태소가 아니다.

① '집에 간다'의 '에'
② '국물이 식었다'의 '었'
③ '꽃이 예쁘구나'의 '구나'
④ '나는 학교에 갑니다'의 '니'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형태소가 뜻을 지닌 가장 작은 말의 단위라는 점을 이해하고, 의미를 지닌 형태소와 의미가 없는 자음 하나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형태소는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이다. '집', '나'처럼 구체적인 대상을 나타내는 형태소뿐 아니라 조사 '에', 과거를 나타내는 '었', 종결 어미 '구나'처럼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는 요소도 형태소이다. 반면 자음 'ㄴ'은 그 자체로 뜻을 지니지 않으므로 형태소가 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O — '에'는 앞말이 나타내는 장소와 이동의 목적지를 드러내는 조사이므로 문법적 의미를 지닌 형태소이다.
② O — '었'은 사건이 과거에 일어났음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이므로 문법적 의미를 지닌 형태소이다.
③ O — '구나'는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대한 느낌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이므로 문법적 의미를 지닌 형태소이다.
④ X — 'ㄴ'은 '나는'에 쓰인 자음 하나일 뿐, 그 자체로 뜻을 지니지 않으므로 형태소가 아니다. 틀린 표현 'ㄴ'은 의미를 지닌 '나' 또는 조사 '는'으로 고치면 형태소의 적절한 예가 된다.

오답 포인트

글자 하나처럼 작게 나눌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형태소라고 판단하기 쉽다. 형태소의 기준은 글자의 크기가 아니라 그 단위가 어휘적 의미나 문법적 의미를 지니는지에 있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제시된 부분을 더 작게 나누었을 때에도 뜻이 남는지 확인한다. 대상·동작 등의 어휘적 의미나 조사·시제·문장 종결 등의 문법적 의미가 있으면 형태소이고, 뜻 없는 자음이나 모음만 남으면 형태소가 아니다.

암기 포인트

형태소는 '가장 작은 글자'가 아니라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이다.

NoteBase

12.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전통적인 경제학은 인간이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고 가정한다. 즉,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정보를 고려하여 최선의 결정을 내린다고 본다. 그러나 실제 인간의 의사 결정은 이러한 이상적인 모델과는 거리가 있다.
>
> 인간은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인지적 한계를 지니며, 이로 인해 체계적인 오류를 범한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손실을 이익보다 더 크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동일한 크기의 이익과 손실이 주어졌을 때, 손실에서 느끼는 심리적 영향이 더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은 '손실 회피'로 불리며, 인간의 의사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
> 또한 사람들은 모든 정보를 분석하기보다는 직관이나 경험에 의존하여 빠르게 판단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판단 방식은 효율적일 수 있지만, 동시에 편향된 결론을 낳을 위험도 있다. 따라서 인간의 의사 결정은 합리적 계산의 결과라기보다, 제한된 인지 능력과 심리적 요인의 영향을 받은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① 인간은 항상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
② 인간은 모든 정보를 분석하여 판단한다.
③ 손실은 이익보다 작게 인식된다.
④ 인간은 직관에 의존하여 판단하기도 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글의 중심 내용인 인간 의사 결정의 비합리성과 그 원인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전통 경제학의 이상적 인간은 모든 정보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선택한다고 가정된다. 그러나 실제 인간은 제한된 인지 능력 때문에 체계적인 오류를 범하고, 손실 회피와 직관·경험 같은 심리적 요인의 영향을 받아 판단한다. 따라서 글의 주제는 합리적 계산 자체보다 실제 의사 결정에 작용하는 인지적·심리적 요인에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항상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는 표현이 틀렸다. 이는 전통 경제학의 가정일 뿐이며, 실제 인간은 인지적 한계와 심리적 요인 때문에 비합리적 판단을 하기도 한다. 올바르게는 '인간은 항상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인지적·심리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이다.
② X — '모든 정보를 분석하여 판단한다'는 표현이 틀렸다. 글은 사람들이 모든 정보를 분석하기보다 직관이나 경험에 의존해 빠르게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한다. 올바르게는 '인간은 모든 정보를 분석하기보다 직관이나 경험에 의존해 판단하기도 한다'이다.
③ X — '손실은 이익보다 작게 인식된다'는 표현이 틀렸다. 글은 같은 크기의 이익과 손실이 주어질 때 손실의 심리적 영향을 더 크게 느낀다고 설명한다. 올바르게는 '손실은 같은 크기의 이익보다 더 크게 인식된다'이다.
④ O — 글은 인간이 직관이나 경험에 의존해 판단하기도 한다고 직접 설명하므로, 본문의 핵심 내용과 일치한다.

오답 포인트

첫 문단의 전통 경제학 가정을 글쓴이의 결론으로 오해하면 ①이나 ②를 고르기 쉽다. 그러나 '그러나' 뒤에서 실제 인간의 인지적 한계, 손실 회피, 직관·경험 의존이 제시되므로 이 내용들을 포괄하는 ④가 주제에 가장 적절하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주제 문항에서는 도입부의 기존 가정보다 역접 표현 뒤에 제시된 글쓴이의 핵심 설명을 확인한다. 여러 문단에서 반복되는 '인지적 한계·심리적 요인·직관과 경험'이라는 공통 내용을 가장 넓게 포괄하는 선지를 고른다.

암기 포인트

이상적 모델은 완전한 합리성, 실제 인간은 인지적 한계와 심리적 영향이다.

NoteBase

13. 밑줄 친 부분의 쓰임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수심에 싸인 그의 표정은 한없이 어둡기만 하였다.
② 이 곤욕스러운 문제에 대하여 친구에게 조언을 구했다.
③ 이번 음악회에는 해외에서 활동하는 성악가들이 대거 출연하였다.
④ 우리 경제는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문맥에 맞는 어휘가 쓰였는지 판단하고, 뜻이 비슷해 혼동하기 쉬운 '곤욕'과 '곤혹'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곤욕은 '심한 모욕이나 참기 힘든 일'을 뜻하여 주로 '곤욕을 치르다'와 같이 쓴다. 곤혹은 '곤란한 일을 당하여 어찌할 바를 모름'을 뜻하므로 해결하기 난처한 문제는 '곤혹스러운 문제'라고 표현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싸이다'는 어떤 것이 둘러서 가려지거나 덮인다는 뜻이다. 근심에 휩싸인 표정을 나타내는 '수심에 싸인'은 문맥에 맞는다.
② X — '곤욕스러운 문제'가 문맥상 부적절하다. '곤욕스럽다'는 심한 모욕이나 참기 힘든 일을 느낄 만하다는 뜻이므로, 해결하기 어렵고 난처한 문제에는 '곤혹스럽다'를 써야 한다. 올바르게는 '이 곤혹스러운 문제에 대하여 친구에게 조언을 구했다.'이다.
③ O — '출연하다'는 무대나 방송 등에 나와 연기하거나 공연한다는 뜻이다. 성악가들이 음악회에 나와 공연한다는 문맥에 알맞다.
④ O — '유례'는 같거나 비슷한 예를 뜻한다. 이전에 비슷한 예를 찾기 어려울 만큼 큰 성장을 나타내는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는 적절하다.

오답 포인트

②의 '곤욕스러운'을 단순히 '곤란하고 어려운'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기 쉽다. 그러나 문제 자체가 난처하다는 뜻에는 '곤혹스러운'이 알맞고, '곤욕'은 보통 사람이 모욕이나 견디기 힘든 일을 겪는 상황에 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어휘를 사전적 의미와 문장 속 대상에 함께 대입한다. ‘참기 힘든 일을 겪음’이면 곤욕, ‘어찌할 바를 모를 만큼 난처함’이면 곤혹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곤욕은 치르고, 곤혹스러운 문제는 해결한다.

NoteBase

14. 의미가 중복된 표현을 바로잡은 예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외국인 불법 체류! 더 이상은 안 됩니다.
→ 외국인 불법 체류! 더는 안 됩니다.

② 사료용 교잡종을 재배하면 8월 하순 무렵에 수확할 수 있어 연간 삼모작 재배도 가능하다.
→ 사료용 교잡종을 재배하면 8월 하순 무렵에 수확할 수 있어 한 해 동안에 삼모작도 가능하다.

③ 계획 수립 과정에서 녹색 성장 관련 전문가 그룹인 녹색성장위원회와 녹색성장기획연구단을 통해 자문과 의견을 수렴하고
→ 계획 수립 과정에서 녹색 성장 관련 전문가 그룹인 녹색성장위원회와 녹색성장기획연구단에 자문하고

④ 가로변 쓰레기통은 결박하고, 현수막 등은 제거함
→ 가로변 쓰레기통은 고정해 두고, 현수막 등은 제거함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의미가 겹치는 표현을 찾아 중복 요소를 실제로 덜어 냈는지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의미 중복은 뜻이 같거나 이미 포함된 내용을 불필요하게 되풀이하는 표현이다. 중복 표현을 바로잡을 때에는 겹치는 말 가운데 하나를 덜어 내되 원래 뜻은 유지해야 한다. 단순히 비슷한 말로 바꾸는 것은 의미 중복의 수정이 아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더 이상은’에서 ‘더’와 ‘이상’은 부정 표현 ‘안 됩니다’와 함께 쓰일 때 의미가 겹친다. ‘더는 안 됩니다’로 고쳐 중복을 줄였으므로 적절하다.

② O
- ‘삼모작’에는 같은 땅에서 한 해에 세 번 작물을 재배한다는 뜻이 들어 있으므로 ‘삼모작 재배’는 의미가 겹친다. ‘한 해 동안에 삼모작도 가능하다’로 고쳐 ‘재배’를 덜어 냈으므로 적절하다.

③ O
- ‘자문’은 전문가에게 의견을 묻는다는 뜻이므로 ‘자문과 의견을 수렴하고’는 의미가 겹친다. ‘녹색성장위원회와 녹색성장기획연구단에 자문하고’로 고쳐 중복을 없앴으므로 적절하다.

④ X
- 틀린 부분은 ‘결박하고’를 ‘고정해 두고’로 바꾼 것이 의미 중복을 바로잡은 사례라고 본 점이다. ‘결박하다’는 단단히 묶는다는 뜻이고 원문에는 이 뜻을 중복하여 나타낸 별도의 표현이 없다. 따라서 이는 비슷한 뜻의 말로 바꾼 것일 뿐 중복 제거가 아니다. 의미 중복의 관점에서는 ‘가로변 쓰레기통은 결박하고, 현수막 등은 제거함’처럼 원문을 유지할 수 있다.

오답 포인트

④의 ‘고정해 두고’가 ‘결박하고’보다 익숙하고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이 문항의 판단 기준은 표현의 자연스러움이 아니라 중복된 의미의 제거 여부이다. ④에는 애초에 겹치는 말이 없으므로 수정 목적에 맞지 않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원문에서 같은 뜻을 담당하는 두 요소를 찾고, 수정문에서 그중 하나가 빠졌는지 확인한다. 원문과 수정문이 단지 유의어 관계라면 의미 중복을 바로잡은 예로 판단하지 않는다.

암기 포인트

중복 수정은 ‘겹치는 뜻 하나 덜기’이고, 유의어 교체는 중복 수정이 아니다.

NoteBase

15. ㉠에 나타나는 음운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같이'의 '가치', 함께할 때 아름답습니다.

① '맏이'에서 나타나는 음운 현상과 동일하다.
② '굳이'에서 나타나는 음운 현상과 동일하다.
③ '곧이어'에서 나타나는 음운 현상과 동일하다.
④ '밭이다'에서 나타나는 음운 현상과 동일하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같이'에서 나타나는 구개음화를 다른 단어의 음운 현상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구개음화는 받침 'ㄷ, ㅌ'이 형식 형태소의 모음 'ㅣ'와 만나 각각 'ㅈ, ㅊ'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따라서 '같이'는 [가치]로 발음된다.
ㄴ 첨가는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이, 야, 여, 요, 유'로 시작할 때 'ㄴ'이 덧나는 현상이다. 비음화는 비음이 아닌 자음이 비음의 영향으로 비음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맏이'는 받침 'ㄷ'이 뒤의 'ㅣ'를 만나 'ㅈ'으로 바뀌어 [마지]로 발음된다. '같이'와 동일한 구개음화이다.
② O — '굳이'는 받침 'ㄷ'이 뒤의 'ㅣ'를 만나 'ㅈ'으로 바뀌어 [구지]로 발음된다. '같이'와 동일한 구개음화이다.
③ X — '꽃잎'은 [꼰닙]으로 발음된다. 'ㄴ'이 첨가된 뒤 앞의 받침이 비음 'ㄴ'으로 바뀌므로, 구개음화가 아니라 ㄴ 첨가와 비음화가 나타난다. 틀린 표현인 '음운 현상과 동일하다'는 '음운 현상과 동일하지 않다'로 고쳐야 한다.
④ O — '밭이다'는 받침 'ㅌ'이 뒤의 'ㅣ'를 만나 'ㅊ'으로 바뀌어 [바치다]로 발음된다. '같이'와 동일한 구개음화이다.

오답 포인트

③의 '꽃잎'에도 소리가 바뀌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점만 보고 '같이'와 같다고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소리가 바뀌었는지가 아니라 어떤 음운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구분해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단어의 표준 발음을 먼저 적은 뒤 변화 전후의 음운을 비교한다. 받침 'ㄷ, ㅌ'이 'ㅈ, ㅊ'으로 바뀌면 구개음화이고, 'ㄴ'이 새로 생긴 뒤 앞 자음까지 비음으로 바뀌면 ㄴ 첨가와 비음화이다.

암기 포인트

같이·맏이·굳이·밭이다는 구개음화, 꽃잎은 ㄴ 첨가와 비음화이다.

NoteBase

※ [16 ~ 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인간은 오랫동안 자신을 자연과 분리된 존재로 인식해 왔다. (가) 인간이 자연을 통제하고 이용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어진 그 결과 자연은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자원으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생태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은 자연과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생태계의 한 구성원에 불과하다. (나) 생태계는 수많은 생물 종과 환경 요소가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체계이다. (다) 각 종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며, 이러한 관계 속에서 전체 생태계의 균형이 유지된다. (라) 따라서 특정 종의 감소나 소멸은 단순히 그 종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된다.
>
> 특히 생물다양성은 생태계의 안정성과 회복력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다양한 종이 존재할수록 생태계는 외부 환경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일부 종이 사라지더라도 전체 체계가 붕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반대로 생물다양성이 감소하면 생태계는 외부 충격에 취약해지고, 그 결과 인간의 삶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연을 과도하게 이용해 왔다. 이러한 행동은 장기적으로 생태계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결국 인간 자신에게도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인간은 자연을 단순한 자원의 집합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생태계의 구성원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이는 단순한 윤리적 요구를 넘어, 인간 생존을 위한 현실적인 선택이기도 하다

16. 윗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인간의 자연 이용은 반드시 부정적 결과를 낳는다.
② 생태계의 안정성은 종 간 상호작용과 다양성에 의존한다.
③ 생물다양성은 인간과 무관한 문제이다.
④ 인간은 자연과 분리된 존재로서, 자연은 인간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조절될 수 있다.

정답 2번

NoteBase

출제 포인트

지문에 제시된 생태계의 상호작용, 생물다양성, 안정성의 관계를 바탕으로 타당한 내용을 추론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생태계는 여러 생물 종과 환경 요소가 복잡하게 상호작용하는 체계이다. 생물다양성이 높을수록 일부 종이 사라지거나 외부 환경이 변해도 전체 생태계가 균형을 유지하고 회복할 가능성이 커진다. 인간 역시 생태계의 구성원이므로 자연의 변화와 훼손은 인간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표현은 '반드시 부정적 결과를 낳는다'이다. 지문은 자연의 과도한 이용이 장기적으로 생태계의 균형을 무너뜨려 인간에게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을 뿐, 모든 자연 이용이 예외 없이 부정적 결과를 낳는다고 단정하지 않았다. 올바르게는 '자연을 과도하게 이용하면 장기적으로 생태계와 인간에게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이다.
② O — 지문은 종들이 서로 다양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여 생태계의 균형이 유지되고, 생물다양성이 생태계의 안정성과 회복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생태계의 안정성이 종 간 상호작용과 다양성에 의존한다는 추론은 적절하다.
③ X — 틀린 표현은 '인간과 무관한 문제'이다. 지문은 생물다양성 감소로 생태계가 외부 충격에 취약해지면 인간의 삶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올바르게는 '생물다양성은 인간의 삶과도 직접 관련된 문제이다'이다.
④ X — 틀린 표현은 '인간은 자연과 분리된 존재'와 '자연은 인간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조절될 수 있다'이다. 이는 지문 첫머리에서 비판하는 종래의 관점이며, 생태학적 관점에서는 인간을 생태계의 한 구성원으로 본다. 올바르게는 '인간은 자연과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생태계의 구성원이며, 자연을 단순한 자원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이다.

오답 포인트

①의 '반드시'와 같은 단정 표현에 주의해야 한다. 지문은 자연 이용 자체를 전면 부정하지 않고 '과도한 이용'의 장기적 위험을 말한다. 또한 ④는 지문이 소개한 과거의 인간 중심적 관점을 글쓴이의 결론으로 뒤바꾼 선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추론 선지는 지문의 핵심 인과 관계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이 글에서는 '종 간 상호작용과 생물다양성 → 생태계의 균형·안정성·회복력 → 인간의 삶에 영향'이라는 연결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반드시', '무관하다', '분리된 존재'처럼 지문의 범위를 과도하게 넓히거나 관점을 뒤집는 표현은 배제한다.

암기 포인트

생물다양성과 상호작용이 클수록 생태계의 안정성과 회복력이 높아지며, 인간도 그 생태계 안에 속한다.

NoteBase

※ [16 ~ 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인간은 오랫동안 자신을 자연과 분리된 존재로 인식해 왔다. (가) 인간이 자연을 통제하고 이용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어진 그 결과 자연은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자원으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생태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은 자연과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생태계의 한 구성원에 불과하다. (나) 생태계는 수많은 생물 종과 환경 요소가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체계이다. (다) 각 종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며, 이러한 관계 속에서 전체 생태계의 균형이 유지된다. (라) 따라서 특정 종의 감소나 소멸은 단순히 그 종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된다.
>
> 특히 생물다양성은 생태계의 안정성과 회복력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다양한 종이 존재할수록 생태계는 외부 환경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일부 종이 사라지더라도 전체 체계가 붕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반대로 생물다양성이 감소하면 생태계는 외부 충격에 취약해지고, 그 결과 인간의 삶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연을 과도하게 이용해 왔다. 이러한 행동은 장기적으로 생태계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결국 인간 자신에게도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인간은 자연을 단순한 자원의 집합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생태계의 구성원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이는 단순한 윤리적 요구를 넘어, 인간 생존을 위한 현실적인 선택이기도 하다

17. 윗글에 다음 문장이 들어갈 위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이러한 인식은 생태계의 복잡성을 단순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정답 1번

NoteBase

출제 포인트

삽입 문장의 지시어가 가리키는 내용과 앞뒤 문장의 논리적 연결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문장 삽입에서는 지시 표현의 대상이 바로 앞 문맥에 분명히 제시되는지, 삽입 뒤의 문장이 그 내용을 자연스럽게 이어 가는지를 확인한다. '이러한 인식'은 인간을 자연과 분리된 존재로 보는 인식을 가리키며, 삽입문의 '생태계의 복잡성을 단순화'했다는 내용은 뒤의 자연을 인간의 필요를 위한 자원으로 간주했다는 설명으로 구체화된다.

선지별 해설

① O — (가) 바로 앞의 '인간은 오랫동안 자신을 자연과 분리된 존재로 인식해 왔다'가 '이러한 인식'의 대상을 직접 제시한다. 삽입 뒤에는 그 인식이 자연을 통제·이용의 대상으로 보고 자원으로 간주하게 했다는 결과가 이어지므로 흐름이 자연스럽다.

② X — 틀린 판단은 '(나)에 넣는다'이다. (나) 앞에는 인간이 자연과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생태계의 구성원이라는 생태학적 관점이 나오므로, 이를 '생태계의 복잡성을 단순화한 인식'이라고 받으면 내용이 어긋난다. 올바르게는 인간과 자연을 분리한 인식 바로 뒤인 (가)에 넣는다.

③ X — 틀린 판단은 '(다)에 넣는다'이다. (다) 앞 문장은 생태계가 생물 종과 환경 요소가 복잡하게 얽힌 체계라고 설명하므로, '이러한 인식'이 복잡성을 단순화했다는 삽입문과 의미상 충돌한다. 올바르게는 분리된 존재라는 인식이 제시된 뒤인 (가)에 넣는다.

④ X — 틀린 판단은 '(라)에 넣는다'이다. (라) 앞에서는 종들이 상호작용하며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한다고 설명하고, 뒤의 '따라서'는 그 관계로부터 특정 종의 감소가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준다는 결론을 이끈다. 삽입문을 넣으면 이 인과 연결이 끊긴다. 올바르게는 (가)에 넣는다.

오답 포인트

삽입문의 '생태계의 복잡성'이라는 말만 보고 생태계의 복잡한 관계를 설명하는 (나)나 (다) 근처를 고르기 쉽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이 받는 것은 생태계의 복잡성 자체가 아니라 인간을 자연과 분리된 존재로 본 인식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이러한', '그', '이와 같은'과 같은 지시 표현의 대상을 찾고, 그다음 삽입문 뒤의 문장이 원인·결과·구체화 관계로 이어지는지 확인한다. 이 문항에서는 '분리된 존재라는 인식 → 복잡성의 단순화 → 자연을 통제·이용할 자원으로 간주'의 흐름이 성립하는 위치를 고른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지시어는 앞에서 대상을 찾고, 접속 관계는 뒤에서 확인한다.

NoteBase

18. 다음 시의 밑줄 친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사용된 표현 기법과 유형이 같은 것은?

>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쌓여
> 지금은 가야 할 때
>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 머지않아 열매 맺는
> 가을을 향하여
>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
> – 이형기, 「낙화」 –

①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에 내 말이 '잊었노라'
②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 저어 오오.
③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④ 꽃처럼 붉은 울음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밑줄 친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쓰인 역설법을 파악하고, 다른 표현법과 구별하는 문제이다. 이 구절은 이별이라는 부정적 상황이 오히려 성숙과 결실을 이루게 한다는 진실을 겉으로 모순된 표현에 담는다.

핵심 개념

역설법은 겉으로는 모순되어 보이지만 그 안에 진실이나 의미를 담는 표현법이다. '결별'과 '축복', '소리 없는'과 '아우성'처럼 서로 어울리지 않는 말이 결합한다.
반어법은 실제 의도와 반대되는 말을 하는 표현법이고, 은유법은 원관념을 보조 관념에 직접 빗대는 표현법이다. 직유법은 '처럼'과 같은 연결어로 빗대며, 공감각적 표현은 한 감각을 다른 감각의 말로 옮겨 나타낸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잊었노라’는 잊지 못한 마음을 실제 의도와 반대로 말한 반어법이다. 이를 역설법으로 보는 것은 틀리며, 올바르게는 반어적 표현이다.
② X — ‘내 마음은 호수요’는 마음을 호수에 직접 빗댄 은유법이다. 이를 역설법으로 보는 것은 틀리며, 올바르게는 은유적 표현이다.
③ O — ‘소리 없는 아우성’은 소리가 없다는 말과 아우성이라는 말이 겉으로 모순되면서도 깃발의 격렬한 몸짓을 드러내는 역설법이다.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과 표현 기법 및 유형이 같다.
④ X — ‘꽃처럼’은 직유법이고, 청각적 대상인 ‘울음’을 시각적 속성인 ‘붉은’으로 나타낸 부분은 공감각적 표현이다. 이를 역설법으로 보는 것은 틀리며, 올바르게는 직유와 감각의 전이가 결합한 표현이다.

오답 포인트

①의 ‘잊었노라’도 말과 속뜻이 어긋나므로 모순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는 실제 의도와 반대로 말한 반어법이다. 역설법은 ③처럼 한 표현 안에서 서로 모순되는 말이 결합하면서 숨은 진실을 드러낸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서로 양립하기 어려운 말이 한 표현 안에 함께 있으면서 의미 있는 진실을 드러내면 역설법으로 판단한다. 겉말과 실제 의도가 반대이면 반어법, 대상을 다른 대상에 직접 빗대면 은유법, ‘처럼’ 등의 연결어로 빗대면 직유법으로 구별한다.

암기 포인트

역설은 ‘겉모순 속 진실’, 반어는 ‘겉말과 속뜻의 반대’이다.

NoteBase

19.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덕기는 조부의 완고한 고집에 속이 상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조부의 저러한 태도가 이해가 가기도 하였다. 그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
> – 염상섭, 「삼대」 –

① 인물의 외적 행동만 제시되는 관찰자 시점이다.
② 서술자가 자신의 경험을 직접 진술하는 1인칭 시점이다.
③ 특정 인물의 내면이 중심적으로 제시되는 시점이다.
④ 여러 인물의 내면이 자유롭게 제시되는 전지적 시점이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서술자가 인물의 행동과 내면 가운데 무엇을, 어느 범위까지 제시하는지를 바탕으로 서술 시점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관찰자 시점은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에 들어가지 않고 겉으로 드러난 말과 행동을 중심으로 서술하는 방식이다. 반면 인물의 내면을 직접 제시하는 시점에서는 서술자가 인물의 생각이나 감정을 바로 알려 준다. 이 글은 이야기 밖의 서술자가 '덕기'의 속상함과 조부에 대한 이해라는 내면을 직접 밝히되, 다른 인물의 내면까지 자유롭게 드러내지는 않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인물의 외적 행동만 제시된다'는 부분이 틀렸다. '속이 상했다', '이해가 가기도 하였다'에서 덕기의 내면이 직접 제시된다. 올바르게는 인물의 외적 행동뿐 아니라 덕기의 내면도 제시되는 시점이다.
② X — '서술자가 자신의 경험을 직접 진술하는 1인칭 시점'이라는 부분이 틀렸다. 서술자는 '나'로 등장하지 않고 덕기를 '그'라고 지칭한다. 올바르게는 이야기 밖의 서술자가 3인칭으로 덕기의 행동과 내면을 서술하는 시점이다.
③ O — 서술자는 덕기가 속상해하면서도 조부를 이해하기도 하는 마음을 직접 제시한다. 다른 인물의 내면은 드러내지 않으므로 특정 인물인 덕기의 내면이 중심적으로 제시되는 시점이라는 설명이 가장 적절하다.
④ X — '여러 인물의 내면이 자유롭게 제시된다'는 부분이 틀렸다. 제시된 글에서 직접 드러나는 내면은 덕기의 내면뿐이다. 올바르게는 특정 인물인 덕기의 내면이 중심적으로 제시되는 시점이다.

오답 포인트

덕기의 내면을 서술자가 직접 안다는 이유만으로 ④를 고르기 쉽다. 그러나 ④는 여러 인물의 내면을 자유롭게 제시해야 성립하며, 이 글에는 덕기의 내면만 나타난다. '그'라는 표현만 보고 관찰자 시점으로 판단하는 것도 함정이다. 시점은 인칭 표현뿐 아니라 내면 제시 여부와 그 범위를 함께 살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서술자가 '나'로 등장하는지 확인하고, 다음으로 인물의 속마음을 직접 알려 주는 표현이 있는지 확인한다. 내면이 제시된다면 한 인물의 내면에 집중하는지, 여러 인물의 내면을 자유롭게 오가는지까지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겉으로 보이는 행동만 제시하면 관찰자 시점, 한 인물의 속마음에 집중하면 특정 인물 중심 시점, 여러 인물의 속마음을 자유롭게 제시하면 전지적 시점이다.

NoteBase

※ [20 ~ 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인공지능은 인간의 삶을 돕기 위한 도구이므로, 개발 및 활용의 전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이 지향해야 할 핵심 가치를 담은 '3대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
> 첫째는 '인간 존엄성 원칙'이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정신과 신체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개발되어야 하며, 인간의 생명이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안전성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판단을 보조할 수는 있으나, 인간을 수단으로 전락시키거나 인간의 자율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
> 둘째는 '사회의 공익 원칙'이다. 인공지능은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인류의 공동 번영에 기여해야 한다. 인공지능 기술이 특정 계층이나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사용되는 것을 경계하고, 인류 전체의 복지 증진이라는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이는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와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가치를 포함한다.
>
> 셋째는 '기술의 합목적성 원칙'이다. 인공지능은 본래의 의도된 목적에 따라 인류의 삶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인공지능 기술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기술이 인간의 통제 범위 내에서 안전하고 유익하게 작동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 이러한 3대 원칙은 인공지능이 단순히 효율적인 기술을 넘어, 인간과 조화를 이루며 공존할 수 있는 윤리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20.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인공지능은 인간의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발되어야 한다.

② '사회의 공익 원칙'은 특정 계층이 아닌 인류 전체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③ 인공지능 기술의 오남용 방지는 '기술의 합목적성'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이다.

④ 인공지능이 인간의 삶을 돕는 도구라면, 상황에 따라 인간을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정답 4번

NoteBase

출제 포인트

인공지능의 3대 기본원칙인 '인간 존엄성', '사회의 공익', '기술의 합목적성'의 핵심 내용을 선지와 정확히 대응시키는 문제이다. 특히 '인간을 위한 도구'라는 표현이 인간을 수단으로 이용해도 된다는 뜻은 아님을 파악해야 한다.

핵심 개념

인간 존엄성 원칙: 인공지능은 인간의 정신과 신체에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하며, 인간의 생명·권리·자율성을 우선하여 보호해야 한다.
사회의 공익 원칙: 인공지능은 특정 계층이나 집단만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복지와 공동 번영에 기여해야 한다.
기술의 합목적성 원칙: 인공지능은 본래 의도된 목적에 맞게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되고, 오남용 없이 인간의 통제 범위 안에서 안전하고 유익하게 작동해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지문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판단을 보조할 수는 있지만 인간의 자율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인간의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되어야 한다는 내용은 '인간 존엄성 원칙'과 일치한다.
② O — 지문은 인공지능 기술이 특정 계층이나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사용되는 것을 경계하고, 인류 전체의 복지 증진이라는 공익적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선지는 '사회의 공익 원칙'과 일치한다.
③ O — 지문은 '기술의 합목적성 원칙'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오남용을 방지해야 한다고 직접 밝힌다. 따라서 오남용 방지는 이 원칙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이다.
④ X — 틀린 부분은 '상황에 따라 인간을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이다. 지문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삶을 돕는 도구이더라도 인간을 수단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다. 올바르게는 '인공지능은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을 수단으로 전락시키거나 인간의 자율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이다.

오답 포인트

④는 '인공지능은 인간의 삶을 돕기 위한 도구'라는 첫 문장의 주체와 객체를 뒤바꾼 선지이다. 인공지능이 인간을 위한 도구라는 말은 인간이 인공지능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상황에 따라'라는 조건을 붙여 지문의 절대적 금지 내용을 약화한 점도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내용 일치 문제에서는 각 선지의 핵심어를 지문의 대응 문장과 대조한다. '인간의 자율성 보호'는 인간 존엄성, '인류 전체의 복지'는 사회의 공익, '오남용 방지와 목적에 맞는 사용'은 기술의 합목적성에 대응한다. 지문의 '해서는 안 된다'를 선지에서 '상황에 따라 할 수 있다'로 바꾸면 불일치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존엄성은 인간 보호, 공익은 인류 전체의 복지, 합목적성은 목적에 맞는 안전한 사용이다. 인공지능은 인간을 돕는 도구이지, 인간을 수단으로 삼는 주체가 아니다.

NoteBase

※ [20 ~ 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인공지능은 인간의 삶을 돕기 위한 도구이므로, 개발 및 활용의 전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이 지향해야 할 핵심 가치를 담은 '3대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
> 첫째는 '인간 존엄성 원칙'이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정신과 신체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개발되어야 하며, 인간의 생명이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안전성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판단을 보조할 수는 있으나, 인간을 수단으로 전락시키거나 인간의 자율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
> 둘째는 '사회의 공익 원칙'이다. 인공지능은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인류의 공동 번영에 기여해야 한다. 인공지능 기술이 특정 계층이나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사용되는 것을 경계하고, 인류 전체의 복지 증진이라는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이는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와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가치를 포함한다.
>
> 셋째는 '기술의 합목적성 원칙'이다. 인공지능은 본래의 의도된 목적에 따라 인류의 삶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인공지능 기술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기술이 인간의 통제 범위 내에서 안전하고 유익하게 작동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 이러한 3대 원칙은 인공지능이 단순히 효율적인 기술을 넘어, 인간과 조화를 이루며 공존할 수 있는 윤리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21. 윗글의 논지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핵심 개념을 제시한 후, 이를 하위 원칙별로 나누어 병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② 상반된 두 가지 관점을 대조하여 새로운 제3의 대안을 도출하고 있다.
③ 인공지능 기술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시대순으로 분석하며 미래를 전망하고 있다.
④ 구체적인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윤리의 필요성을 귀납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정답 1번

NoteBase

출제 포인트

글의 중심 내용을 제시한 뒤 세부 항목을 어떤 관계와 순서로 설명하는지 파악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병렬적 전개는 하나의 상위 개념을 같은 층위의 여러 항목으로 나누어 나란히 설명하는 방식이다. 이 글은 도입부에서 인공지능의 '3대 기본원칙'을 핵심 개념으로 제시한 뒤, 인간 존엄성 원칙·사회의 공익 원칙·기술의 합목적성 원칙을 '첫째·둘째·셋째'로 나누어 차례로 설명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도입부에서 '3대 기본원칙'을 먼저 제시하고, 이어지는 문단에서 세 원칙을 각각 같은 층위의 하위 항목으로 나누어 병렬적으로 설명한다.

② X — '상반된 두 가지 관점을 대조하여 새로운 제3의 대안을 도출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글에는 대립하는 두 관점이나 이를 종합한 제3의 대안이 없다. 올바르게는 하나의 핵심 개념인 3대 기본원칙을 세 하위 원칙으로 나누어 설명한다고 해야 한다.

③ X — '역사적 발전 과정을 시대순으로 분석하며 미래를 전망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글에는 시대 구분, 시간의 흐름, 미래 예측이 제시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현재 인공지능이 지향해야 할 세 원칙의 내용과 의의를 항목별로 설명한다고 해야 한다.

④ X — '구체적인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귀납적으로 증명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글에는 실험의 절차·수치·결과가 없으며, 여러 사례에서 일반 결론을 이끌어 내지도 않는다. 올바르게는 제시된 3대 기본원칙의 의미를 원칙별로 풀어 설명한다고 해야 한다.

오답 포인트

'대조', '시대순', '실험 결과'처럼 그럴듯한 전개 방식 용어만 보고 고르면 안 된다. 실제 지문에 대립하는 관점, 시간 표지, 실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이 글에서 반복되는 구조 표지는 '첫째·둘째·셋째'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도입부에서 상위 개념이 제시되는지 확인하고, 각 문단의 첫 문장과 연결 표지를 살핀다. 같은 층위의 항목이 '첫째·둘째·셋째'처럼 반복되면 병렬적 전개로 판단한다. 대조는 서로 반대되는 입장, 시대순은 시간의 흐름, 귀납적 증명은 구체적 사례나 실험 결과에서 일반 결론을 이끌어 내는 과정이 실제로 있어야 성립한다.

암기 포인트

상위 개념 제시 뒤 '첫째·둘째·셋째'로 같은 층위의 항목을 풀이하면 병렬적 전개이다.

NoteBase

22.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우리 할머니는 귀를 잡수셔서 말을 잘 못 알아들으셔."라는 말이 있다. 당연히 '귀를 잡수시는' 것은 불가능한데 왜 이런 말을 쓰는 것일까? 먼저 '귀를 먹다'라는 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귀 먹다'는 귀가 안 들린다는 뜻인데 이때의 '먹다'가 '음식물을 섭취하다'는 뜻의 '먹다'라면 '귀를 먹다'의 의미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음식물을 먹다' 외에 '먹다'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귀나 코가 막혀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다'의 의미를 가진 '먹다'이다. '코 먹은 소리를 내다'의 '코 먹다'를 생각해 보거나 한 걸음 더 나아가 '갑자기 귀가 막힌 듯이 소리가 잘 들리지 않다'는 뜻의 '먹먹하다'를 생각해 보면 '먹다'의 의미를 짐작할 수 있다. 이때의 '먹다'의 의미와 관련이 깊은 말은 모음 하나만 다른 '막다'이다. '귀를 먹는' 것과 '귀를 막는' 것, '코를 먹는' 것과 '코를 막는' 것은 의미적으로 관련이 있다. 그럼 '귀를 잡수셨다'는 어떻게 된 말일까? 이는 '귀를 먹다'의 '먹다'를 '음식물을 먹다'의 '먹다'로 오해하고 높임말인 '잡수시다'를 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할머님 이것도 잡수세요"와 같이 높임말로 쓰이는 '잡수시다'를 채용한 것이다.

① '귀 먹다'는 '귀'와 '먹다'로 분석할 수 없다.
② '귀 먹다'의 '먹다'는 '음식물을 섭취하다'라는 뜻이다.
③ '코 먹다'의 '먹다'는 '귀 먹다'의 '먹다'와 동일한 말이다.
④ '귀 잡수시다'는 '막다'와 관련 있는 '먹다'의 높임말을 쓴 것이다.

정답 3번

NoteBase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문맥에 따라 달라지는 '먹다'의 의미를 구별하고, '귀를 먹다'와 '코 먹은 소리'에 쓰인 '먹다'의 의미 관계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먹다'는 하나의 말이 서로 관련된 여러 의미로 쓰이는 다의어이다. 글에서 '음식물을 섭취하다'의 '먹다'와 달리, '귀를 먹다'와 '코 먹은 소리'의 '먹다'는 귀나 코가 막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뜻이다. 이 의미는 '막다'와 의미적으로 관련된다.

선지별 해설

① X
'귀 먹다'는 '귀'와 '먹다'로 분석할 수 없다는 부분이 틀렸다. 글은 먼저 '귀를 먹다'의 '먹다'가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고 있으므로, 이 표현을 '귀'와 '먹다'로 나누어 의미를 분석할 수 있다. 올바르게는 '귀 먹다'는 '귀'와 '먹다'로 분석할 수 있으며, 여기의 '먹다'는 귀가 막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② X
'귀 먹다'의 '먹다'가 '음식물을 섭취하다'라는 뜻이라는 부분이 틀렸다. 그 뜻으로는 '귀를 먹다'가 이해되지 않으며, 여기서는 귀가 막혀 잘 듣지 못하게 된다는 뜻이다. 올바르게는 '귀 먹다'의 '먹다'는 귀가 막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뜻이다.

③ O
'코 먹다'의 '먹다'와 '귀 먹다'의 '먹다'는 모두 코나 귀가 막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동일한 의미로 쓰였다. 글에서도 두 표현을 '막다'와 의미적으로 관련된 예로 함께 제시한다.

④ X
'귀 잡수시다'의 '잡수시다'가 '막다'와 관련된 '먹다'의 높임말이라는 부분이 틀렸다. 이 표현은 '귀를 먹다'의 '먹다'를 '음식물을 먹다'로 잘못 이해한 뒤, 그 높임말인 '잡수시다'를 대신 쓴 것이다. 올바르게는 '귀 잡수시다'는 '음식물을 섭취하다'라는 뜻의 '먹다'에 대응하는 높임말 '잡수시다'를 잘못 적용한 표현이다.

오답 포인트

'먹다'라는 형태가 같다는 이유로 모든 문맥에서 '음식물을 섭취하다'라는 뜻이라고 판단하기 쉽다. 특히 ④는 '귀를 먹다'의 실제 의미와, 그 표현을 잘못 이해하여 만든 높임 표현의 형성 과정을 뒤섞은 선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같은 형태의 단어가 여러 표현에 나오면 각 문맥에서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확인한다. 그다음 서로 바꾸어 넣을 수 있는 유사 표현과 글에 제시된 의미 관계를 근거로 같은 의미인지 다른 의미인지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먹다’는 문맥에 따라 ‘섭취하다’ 또는 ‘막혀 제 기능을 못 하다’의 뜻이 되며, ‘귀 먹다’와 ‘코 먹다’에서는 후자의 뜻이다.

NoteBase

※ [23 ~ 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눈이 오는가 북쪽엔
함박눈 쏟아져 내리는가

㉠험한 벼랑을 굽이굽이 돌아간
백무선 철길 위에
느릿느릿 밤새어 달리는
화물차의 검은 지붕에

㉡연달린 산과 산 사이
너를 남기고 온
㉢작은 마을에도 복된 눈 내리는가

잉크병 얼어드는 이러한 밤에
어쩌자고 잠을 깨어
㉣그리운 곳 차마 그리운 곳

눈이 오는가 북쪽엔
함박눈 쏟아져 내리는가

- 이용악, 「그리움」 -

23. 위의 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화자는 그리움의 정서를 함박눈의 이미지를 통해 그려내고 있다.
② 너를 남기고 온 작은 마을은 북쪽에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③ 함박눈은 혹독한 북방의 기후와 날씨를 상징한다.
④ 북방은 화자의 그리움이 향하는 고향 같은 곳이다.

정답 3번

NoteBase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시어와 공간의 이미지가 화자의 그리움을 어떻게 드러내는지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시적 이미지는 감각적인 장면을 통해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구체화한다. 이 시에서 '함박눈'은 북쪽의 작은 마을을 떠올리게 하고, '복된 눈'이라는 긍정적 표현과 결합하여 그곳을 향한 그리움을 환기한다. '북쪽', '너를 남기고 온 작은 마을', '그리운 곳'은 화자가 떠나온 공간을 가리키며 서로 이어진다.

선지별 해설

① O — 화자는 북쪽과 작은 마을에도 함박눈이 내리는지를 거듭 묻는다. 함박눈의 이미지는 그리운 북방의 풍경을 구체적으로 떠올리게 하므로 화자의 그리움을 드러낸다는 설명이 적절하다.

② O — '눈이 오는가 북쪽엔'에 이어 '너를 남기고 온 작은 마을에도 복된 눈 내리는가'라고 묻고 있으므로, 화자가 떠나온 작은 마을은 북쪽에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③ X — 틀린 표현은 '혹독한 북방의 기후와 날씨를 상징한다'이다. 시에서는 눈을 '복된 눈'이라 부르며 그리운 마을을 떠올리는 매개로 삼는다. 올바르게는 '함박눈은 북쪽의 작은 마을을 환기하여 화자의 그리움을 심화하는 이미지이다'라고 해야 한다.

④ O — 화자는 북쪽에 두고 온 작은 마을을 '그리운 곳 차마 그리운 곳'이라고 되풀이한다. 따라서 북방은 화자의 그리움이 향하는 고향과 같은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 포인트

'잉크병 얼어드는 이러한 밤'과 눈의 차가운 속성만 보고 ③을 고르지 않기 쉽다. 그러나 상징의 의미는 물리적 속성만이 아니라 문맥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 시의 핵심 단서는 '복된 눈'과 '그리운 곳'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시어의 의미를 판단할 때에는 그 시어 주변의 수식어와 반복되는 정서 표현을 함께 확인한다. 이 시에서는 '함박눈'과 연결된 '복된', '그리운'이 긍정적 정서와 그리움을 가리키므로, 혹독한 기후의 상징이라는 해석은 배제된다.

암기 포인트

함박눈은 혹독한 날씨가 아니라 북방의 그리운 마을을 떠올리게 하는 이미지이다.

NoteBase

※ [23 ~ 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눈이 오는가 북쪽엔
> 함박눈 쏟아져 내리는가
>
> ㉠험한 벼랑을 굽이굽이 돌아간
> 백무선 철길 위에
> 느릿느릿 밤새어 달리는
> 화물차의 검은 지붕에
>
> ㉡연달린 산과 산 사이
> 너를 남기고 온
> ㉢작은 마을에도 복된 눈 내리는가
>
> 잉크병 얼어드는 이러한 밤에
> 어쩌자고 잠을 깨어
> ㉣그리운 곳 차마 그리운 곳
>
> 눈이 오는가 북쪽엔
> 함박눈 쏟아져 내리는가
>
> - 이용악, 「그리움」 -

24. 밑줄 친 ㉠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의 표현으로 보아 화자가 말하는 북쪽은 산악지대인 것을 알 수 있다.
② ㉠과 ㉡은 모두 북쪽의 지형을 암시하며, 기차로도 쉽게 가기는 어렵다는 암시를 준다.
③ ㉢은 그리움의 대상으로서 아주 외진 산골에 위치한다.
④ ㉣은 이 세상에 없는 이상향으로서 '북쪽'이라는 방향으로만 암시될 뿐 구체적인 실체가 없이 상상 속에서 추상화된 공간이다.

정답 4번

NoteBase

출제 포인트

밑줄 친 시어가 드러내는 공간의 지형적 특성과, 그 공간이 현실에 존재하는 구체적 장소인지 화자의 상상으로 만든 추상적 장소인지를 문맥으로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시적 공간의 성격은 해당 표현만 떼어 보지 않고 앞뒤 구절의 지형 묘사와 지시 관계를 함께 살펴 판단한다. 이 시에서 '그리운 곳'은 앞서 제시된 '너를 남기고 온 작은 마을'을 다시 가리키므로, 구체적인 삶의 인연과 기억이 있는 현실의 공간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의 '험한 벼랑을 굽이굽이 돌아간'은 철길이 가파르고 굴곡진 지형을 지난다는 뜻이므로, 북쪽이 산악 지대임을 알 수 있다.

② O
㉠의 '험한 벼랑'과 '굽이굽이'는 험하고 구불구불한 철길을, ㉡의 '연달린 산과 산 사이'는 산이 이어진 지형을 나타낸다. 여기에 화물차가 '느릿느릿 밤새어' 달린다는 묘사가 더해져 기차로도 쉽게 가기 어려운 곳임을 암시한다.

③ O
㉢의 '작은 마을'은 ㉡의 '연달린 산과 산 사이'에 놓여 있다.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인 데다 험한 철길을 따라 오래 가야 하므로, 그리움의 대상인 '너'가 있는 외진 산골 마을로 볼 수 있다.

④ X
틀린 표현은 '이 세상에 없는 이상향', '구체적인 실체가 없이 상상 속에서 추상화된 공간'이다. ㉣의 '그리운 곳'은 앞의 '너를 남기고 온 작은 마을'을 가리키므로, 현실에 존재하는 구체적 장소이자 화자의 그리움이 향하는 공간이다. 올바르게는 '㉣은 북쪽의 작은 마을과 그곳에 남겨 둔 너를 떠올리게 하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공간이다'라고 해야 한다.

오답 포인트

'그리운 곳'이라는 정서적 표현만 보고 ㉣을 막연한 이상향으로 해석하기 쉽다. 그러나 같은 시 안의 '너를 남기고 온', '작은 마을', '연달린 산과 산 사이'가 그 장소의 대상과 위치를 구체화하므로 ④의 설명은 문맥과 어긋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공간의 성격을 묻는 선지는 앞뒤 구절에서 그 공간의 지형, 이동 경로, 그곳에 있는 인물이나 사물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는지 확인한다. 구체적 단서가 있으면 정서적으로 표현되었더라도 곧바로 상상적·추상적 공간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암기 포인트

㉠·㉡은 험한 산악 지형, ㉢·㉣은 그 산속에 있는 현실의 작은 마을을 가리킨다.

NoteBase

25.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언어 표현의 의미는 단어 자체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용되는 맥락 속에서 형성된다. 동일한 문장이라도 화자의 의도나 발화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표현 자체는 물론 그것이 사용된 맥락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 특히 대화 상황에서는 발화되지 않은 내용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화자는 모든 정보를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청자는 맥락을 바탕으로 그 의미를 추론한다. 이처럼 의미는 표현된 것과 표현되지 않은 것 사이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된다.

① 의미 형성에서 맥락과 추론의 역할
② 언어 표현의 구조적 특성
③ 사전적 의미의 중요성
④ 발화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법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글의 핵심 내용을 포괄하는 주제를 찾는 문제이다. 글은 언어 표현의 의미가 표현 자체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맥락과 추론을 통해 형성된다는 점을 설명한다.

핵심 개념

맥락은 표현이 사용된 상황과 화자의 의도 등을 포함하는 의미 해석의 배경이다. 추론은 청자가 맥락을 바탕으로 명시되지 않은 의미까지 이끌어 내는 과정이다. 따라서 이 글의 중심 내용은 표현된 내용과 표현되지 않은 내용이 맥락 속에서 상호작용하여 의미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글은 의미가 맥락 속에서 형성되며, 대화에서는 청자가 표현되지 않은 내용까지 추론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의미 형성에서 맥락과 추론의 역할'은 두 문단을 모두 포괄하는 주제이다.
② X — '언어 표현의 구조적 특성'은 글에서 다루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구조적 특성'이며, 올바르게는 '언어 표현의 의미가 맥락과 추론을 통해 형성되는 특성'이다.
③ X — 글은 의미가 단어 자체에 고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므로 '사전적 의미의 중요성'은 중심 내용과 반대 방향이다. 틀린 표현은 '사전적 의미의 중요성'이며, 올바르게는 '맥락에 따른 의미 해석의 중요성'이다.
④ X — 글은 의미가 형성되는 원리를 설명할 뿐, 발화를 더 정확하게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발화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법'이며, 올바르게는 '맥락과 추론에 의한 의미 형성의 원리'이다.

오답 포인트

'표현 자체', '사전적 의미', '발화의 정확성'처럼 글에 등장하거나 연상되는 말에 끌리기 쉽다. 그러나 주제는 일부 단어나 부수적 효과가 아니라, 반복해서 설명되는 '맥락'과 '추론'이 의미 형성에 하는 역할을 함께 담아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문단의 핵심을 먼저 묶는다. 첫 문단의 '의미는 맥락 속에서 형성된다'와 둘째 문단의 '청자는 표현되지 않은 의미를 추론한다'를 모두 포함하는 선지를 고르면 된다.

암기 포인트

의미 형성은 표현만이 아니라 맥락과 추론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

NoteBase